

##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시대!

### 강화군, 깨끗한 청정 강화 환경정책 이렇게 추진합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강화군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은 그간 여러 정책과 홍보를 통해 '22년 생활 폐기물 목표관리제 이행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부터 '22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준수'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일궈 내기도 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강화군의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강화군의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연간 약 6,000톤, 매일 약 50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라소각장, 수도권 매립지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외 음식물, 피서지·산자락 폐기물 등 대형폐기물까지 총 처리하는데 연간 약 3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능동적,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맑고 깨끗한 청정 강화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3대 전략 목표 ▲밝은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 ▲클린 강화 확대 ▲청결하고 깨끗한 위생환경 조성을 설정하고 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강화군은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강화군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전기·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약 세대에 대한 반기별 인세티브 지급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배출업소 52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40여 개소 점검을 강화하며, 환경오염원 감축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클린강화 확대를 위해 1일 15톤 재활용 선별시스템 구축으로 쾌적한 클린강화를 조성할 계획이며,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동네마당은 배출지를 청결하게 관리해 주어 깨끗한 강화 이미지에 크게 기여고 있다. 현재 47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약 700개의 CCTV를 통한 무단 투기자 감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등으로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외식업소에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어린이 단체급식소 40개소에 대해서 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함을 공감하고 종이컵 대신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 등으로 생활 속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되새겨 강화군 환경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화함상공원' 11월 14일 임시 개장

### 강화군, 외포리에 퇴역함정 활용한 호국·안보 관광명소 조성



강화함상공원\_마산함

강화함상공원은 내가면 외포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시 개장 기간 무료로 운영한다.

'강화함상공원'은 마산함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재생하여, 시민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군함에서 해군의 생활과 각종 전투 장비를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강화 함상공원은 ▲동절기(11월~2월)에는 10시~17시 ▲하절기(3월~10월)에는 10시~18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 최벽하 기자



강화함상공원\_마산함



# 강화군,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6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안보 태세 확립을 위한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강화교육지원청의 홍보안전 및 해병대 5여단의 건의 사항 등 기관별 안전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이어졌고, 지역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2024년도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방안을 심의했다.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유천호 군수는 "평소 각종 재난 방지와 지역 안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있는 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민·관·군·경의 협조체계를 굳건히 하고 통합 방위 태세 확립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화군의 안보 및 비상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예비군 육성·지원과 강화군 주둔 군부대를 향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통합방위협의회

# 강화군, 제70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공동 협력 방안 논의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일 강화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70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1993년에 구성되어 30년째 운영되고 있는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 8개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며, 상호 균형 발전과 효율적 광역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안건으로는 ▲신도시 생활 SOC시설 확보대책 마련 공동 대응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조기 완화 공동대응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개최지인 인천 강화군을 비롯해 계양구, 서구, 경기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서울 강서구, 양천구의 8개 자치단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을 방문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자지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및 강화~영종 교량 건설로 서부수도권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며,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앞으로 힘을 합해 현장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며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 강화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어르신 위한 가족 힐링프로그램 운영



강화군 치매안심센터 힐링프로그램

강화군(군수 유천호)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일 작은영화관에서 치매어르신과 가족 및 보호자 50명을 대상으로 영화관람을 통한 가족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현재 강화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982명으로 추정되며, 가족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한치매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하루 돌봄 시간은 ▲10시간 이상 38% ▲7~10시간 이상 37% ▲5~7시간 이상 25%로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돌봄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족 힐링프로그램은 돌봄에서 벗어나 치매어르신과 가족, 보호자 간 정보를 교류하고 심리적 안정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날 상영된 영화 '장수상회'는 기억을 잃어도 한 사람을 다시 만나 사랑하는 이야기로 가족 구성원들이 단단하게 결속해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비상 상황에 대비해 상영관과 로비 등에 담당자를 지정해 안전한 관람을 도왔다.

영화를 관람한 한 가족은 "강화에 살면서 영화를 보러 온 적은 처음인데 이런 시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강화군 치매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치매어르신과 가족 및 보호자의 정서적 지원 등을 위해 영화관람, 가족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최백하 기자

문의 ▶ 강화군치매안심센터 ☎ 930-4057



# 강화군,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공사대금 체불 방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1일 신한은행,페이컴스와 함께 차세대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와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 홍종열 (주)페이컴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납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클린페이'는 신한은행과 페이컴스가 구축한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으로,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고, 금융사 계정을 기반으로 원도급사가 압류되어도 안정적인 대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도급사에서 지급한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금급 유용을 방지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클린페이 도입을 통해 하도급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납을 예방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통대교에서 창후리 선착장 5분 강화군, 해안순환도로(4-1공구) 준공식 개최



황청-인화간 해안도로 4-1공구 준공식



황청-인화간 해안도로 4-1공구 준공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9일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에서 강화 해안순환도로(4-1공구) 준공식을 개최했다.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부터 양사면 인화리까지 총연장 2.0km를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4-1공구)는 왕복 2차선으로 총사업비 166억 원이 투입됐다. 2020년 6월에 착공해 올 11월까지 총 41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공했다.

이번 해안순환도로의 준공은 강화군 서북단 지역의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단초가 되는 만큼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강화도 지역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교통대교에서 창후리 선착장까지 국도를 우회하여 20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이번 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5분이면 도착이 가능하여 창후항 어촌뉴딜

사업과 함께 그동안 침체되었던 창후항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천호 강화군수,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박용철 인천시의원,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앞으로 잔여구간 4-2공구(6.6km, 황청~창후)와 5공구(11.2km, 인화~철산)의 조기 완공 추진 할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조기 완공 추진을 위한 예정 뿐만 아니라 군민 숙원사업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영종~신도~강화 연륙교, 마송~강화간 국도확장 사업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로망의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강화군의회,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결



강화군의회 병역명문가 조례 의결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지난 3일 제289회 제8차 본회의를 통해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고 병역명문가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필요한 사항 마련을 골자로 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강화군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유병호 인천병무지청장도 자리를 함께했으며, 박승한 의장이 유 청장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승희 의원은 “강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본 조례안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시에 강화군 내 국방의무 이행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바란다”라며 기대의 말을 전했다.

## 강화군, 해양 수산 발전 위한 ‘어촌계장 간담회’ 개최



어촌계장 간담회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7일 강화군청에서 ‘어촌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 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어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인북부수협과 11개 어촌계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논의 사항은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 어업규제개선, 24년 해양수산분야 사업 등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어촌계 간담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해양수산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강화군 대학생 모여라! 등록금 지원 받자!

### 2023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11월13일~24일까지 신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24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자격은 상반기와 같이 2023년 1월 기준 소득분위 1~8구간의 만 30세 미만 대학생으로, 학생과 보호자 모두 공고일 기준 강화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 등을 제외한 본인 납부액 중 가구 소득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학생들은 학기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헌혈 혼자하지 마세요. 강화군보건소와 함께 해요!



강화군보건소 단체헌혈

한지역으로 상반기는 1~3월, 하반기는 11~12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헌혈이 가능하다.

이에 11월에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강화농협본점, 비에스종합병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12월에는 한국글로벌세프코, 강남영상미디어고에서 헌혈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관내 고등학교(강화고등학교, 강화여자고등학교)와 대학교(인천가톨릭대학교 강화캠퍼스)를 포함해 8개 기관에서 단체헌혈에 참여했다.

헌혈 시 유의해야 할 경우가 있다. ▲A형 간염, 독감 예방주사, 자궁경부

암 예방주사는 접종 24시간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 7일 이후 ▲B형 간염 예방주사는 접종 후 2주 이후 ▲수두,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접종 후 4주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에는 1개월 후 헌혈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내 헌혈자 1인당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며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이날 보건소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생명나눔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3일 혈액 수급 문제에 보탬이 되고자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손잡고 강화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하반기 단체헌혈에 동참했다. 강화군은 말라리아로 인한 헌혈 제

## 강화군, 우수공무원 군민이 직접 선발!

### 11월 30일 까지 후보자 추천 등록, 5명 이내 선발 예정



강화군청 전경

사하고 군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식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군민들과 함께 선발하고 포상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처음 시행해 지금까지 총 13명을 선발했다.

우수 공무원 추천은 군민들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6급 이하, 실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공무원이면, 군민, 기관, 단체 등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방법은 추천서를 작성해 이메일(dy890321@korea.kr)로 보내거나 군청 행정과,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된 공무원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된 군민평가단의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대 5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며, 최종 수상자들에게는 포상금,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군민평가단은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군민 추천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일선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 선발을 위한 ‘우수 공무원’ 후보자 추천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 군민 추천 우수공무원 선발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으로 헌신·봉

## 11월9일~30일 22일간 남산리 노외공영주차장에서 운영 강화군, 청정 강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김장 시장 개장!



김장시장

있는 ‘김장 시장’을 개장한다.

김장 시장은 해마다 지역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개장 기간 내 매일 운영되고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 무, 순무, 파, 고추 등 싱싱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농가에서 손수 기른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유통비용을 줄인 건강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의 구조인 것이다.

특히 강화 농산물은 해풍을 맞으며 자라고, 청정 토양에서 재배되어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청정지역 강화에서 자란 고품질 농산물을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김장 시장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장터”라며 “올해도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로 가득한 김장 시장에서 김장을 준비하길 권장 드린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강화읍 남산리 노외공영주차장(구 품물 시장터)에서 지역 김장 농산물을 거래할 수



# 화도면, 산불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화도면 산불감시원 직무교육

강화군 화도면(면장 조영진)에서는 지난 1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산불감시원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산불 예방 활동의 철저한 근무를 당부하며 산림연접 지역의 소각행위에 대한 벌칙 내용을 홍보했다.

또한, 신규 보급하는 디지털 무전기

사용 방법 안내와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산업안전보건교육도 진행되었다.

조영진 면장은 “영농 이후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구역별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

# 송해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성료



송해면 어울림 한마당

강화군 송해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중)가 지난 4일 송해초등학교 강당에서 ‘2023 송해면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에 송해면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올 한 해 농사 등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축사를 시작으로 주민자치동아리 및 초청가수의 공연과 주민 노래자랑 등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태중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처음 진행한 축제에 걱정도 많이 됐지만, 주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며 “송해면만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경진 송해면장은 “면민이 화합하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 기쁘고, 축제를 진행하신 주민자치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오늘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강화군, 겨울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난방용품 지원

## 울이불, 전기장판 등 200가구 지원, 홀몸 노인 등 461가구 방한복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방한복 전달

지원할 예정이다. 일괄적인 물품 지원보다는 각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461가구의 저소득층 노인 및 홀몸 노인 가구에 방한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강화군 저소득가구를 위해 기부한 강화사랑연합모금기금으로 진행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강화사랑연합모금이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어 강화군을 위한 기부가 지정된 한 계좌로 모여져 모금액 전부를 강화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금형태이다.

겨울이 다가오면 옷장에서 따뜻한 패딩과 두꺼운 옷을 꺼내고, 전기장판이나 겨울 이불을 준비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할 여력이 없어 추위를 견디며,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조금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손길들이 있어 이번 겨울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거 같다.

따뜻한 강화군을 만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강화군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간직하여 더 나은 행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 최백하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동절기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화군은 겨울이불,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을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200가구에







# 강화군, 제10회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등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는 시간 마련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7일, 장애인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에 유천호 강화군수가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수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화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의회(회장 오병혁)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사 등 350여 명이 참가했으며, 게이트볼·다트·팔씨름·미니 농구·홀라후프 등 종목별 체육경기가 펼쳐져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1부 행사는 강화문화원 소속 풍물동아리의 풍물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모범장애인 표창, 내빈 축사 순으로 이

어졌고, 2부에는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결승전 등 즐길 거리를 마련해 참가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체육활동으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고, 회원 간 유대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군은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회관 신축과 관내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제28회 강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 강화군 농업인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인의날 기념행사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8일 강화군 미래치유농업센터에서 '제28회 강화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유천호 강화군수를 비롯

해 농업인 단체장, 지역 농업인 250여 명이 참석해 강화군 농업인의 날을 기념했고, 강화군수 표창 13명, 강화군의회 의장 표창 2명 등 강화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 농업인 15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후계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특히, 올해는 기념식을 마치고 강화

군 미래치유농업센터 개관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이후 화개정원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뤄져 한 해 동안 영농으로 지친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유천호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농업인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다문화이주여성 전통체험 행사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미경)는 지난 7일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전통

문화 체험 행사'는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특화사업이다. 해외 이주여성들이 한국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며,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서로 간의 화합의 시간을 갖게 하여 한국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 이주 여성 20명이 참여했으며, 소창체험관을 방문해 강화 직물산업의 역사를 배우고, 소창 스탬프 체험, 한복 체험, 전통차 시음을 하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특히,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을 찍은 사진을 액자에 담아 증정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김미경 회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주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주여성들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통해 화합과 교류의 시간을 갖게 해준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뜻깊은 시간을 계기로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모두가 풍요로운 강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 2025 APEC 정상회의, 왜 인천인가?

## 2025 APEC 정상회의는 최대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인천이 최적지 미국 버클리대 APEC 연구소 '비노드 아가르왈 교수' 초청 특별강연



명사 초청 특별강연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에 위해 'APEC 명사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명사로 나선 비노드 아가르왈(Vinod Aggarwal) 미국 버클리대학교 교수는 '전환기를 맞은 APEC: 기원, 진화 그리고 전망(APEC in Transition: Origins, Evolution, and Prospects)'을 주제로 인천시, 군·구 및 유관기관 공직자를 대상으

로 정상회의 유치 전략 구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역사와 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인천시와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이사장 박제훈)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비노드 아가르왈 교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과 관련된 정치, 경제 및 비즈니스 동향에 대한 다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버클리대학교 'Berkeley

APEC Study Center(BASC)' 소장으로, UC Berkeley의 정치경제학 교수와 'Business and Politics' 저널 편집장 등 경제·정치·외교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각 분야의 석학들의 강의로 구성된 E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위대한 수업'에서 '세계무역전쟁'을 주제로 강의한 세계적인 석학이기도 하다.

특별강연에서 비노드 아가르왈 교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역사, 최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그리고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강의하면서,

'왜 인천인가?(WHY Incheon?)'라는 소주제로 "인천은 대한민국의 제3의 도시로,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보유한 투자의 요충지이며, 제17회 아시안게임, 제6회 OECD 세계포럼 등 정상급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도시로, 한국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서 최적지"라고 말했다.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우리 시는 오는 12월부터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절차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APEC 정상회의 인천유치를 위한 족집게 특강을 바탕으로 인천시만의 특색있는 유치 제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화초등학교 방문해 맞춤형 현장 교육 실시 강화군, NH농협은행과 '이동 금융 교육' 진행



이동 금융 교육 진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과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11기와 함께 강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이동 금융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동 금융 교육'은 버스형 이동 점

포(NH Wings)를 활용해 금융 소외지역과 격오지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직업 체험 및 진로 탐색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건강한 경제 주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치관을 정립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현명한 용돈 관리'를 주제로 강화초 3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 교육을 진행했고, 용돈 소비계획 및 용돈 기입장 작성 방법 등을 통해 돈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농협은행은 소멸 위기 지역 맞춤형

현장 교육을 통해 정부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금융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금융 역할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현섭 NH농협은행 개인 고객부장은 "농협은행은 정부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경제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통한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에 동참해 준 NH농협은행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동 금융 교육이 확대되어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 지식을가질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벽하기자



## 기고

이경수

## 사극 '연인' 속 길채와 장현의 사랑 이야기



연인 포스터[사진출처 MBC]

설렘설렘 보기 시작한 MBC 사극 '연인'에 그만, 폭 빠지고 말았습니다. 단지 남궁민이 나오는 드라마라서 보기 시작한 것인데 이야기 전개가 탄탄하고 메시지도 묵직해서 충직하게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향하는 '연인', 끝나면 되게 허전할 것 같습니다.

시대 배경이 병자호란입니다. 그때 주인공 유길채(안은진 분)도 강화로 피난 왔다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강화도 함락 직전에 세손(소현세자의 장남)은 교동으로 피해 가서 무사했습니다. 내관 김인과 강문성 등이 생후 10개월 된 세손을 교대로 업고 뛰어서 교동 가는 배에 겨우 올랐다고 해요. '연인'의 작가는 그걸 길채가 세손을 구하는 것으로 각색했습니다.

길채가 세손을 안고 뛰는 바닷가 장면은 명장면이었습니다. 보면서 '굳이 저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 길채가 세손 구한 인연으로 세자빈을 만나게 되더군요. 다, 계획이 있던 겁니다.

저는 그때 강화에서, 길채도 청나라로 끌려가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무사하게 그냥 전쟁이 끝나더군요. 으잉? 밀고 당기기에 능한 작가에게 당했습니다. 병자호란이 종결된 뒤, 어느 날 갑자기, 길채가 청나라로 끌려갔으니까요. 청군에게 붙잡힐 위기에서 여러 여인이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자결로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교육' 받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러나 길채는 안 죽습니다.

'내가 왜 죽어?'

아름다운 당돌함입니다. 당대의 사회 인식과 관습을 거부한 길채는 청나라에서 모진 시련을 겪고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환향녀가 된 것입니다. 역시나 사방에서 손가락질입니다.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여자라고 욕들합니다. 길채는 그 욕을 "개 짖는 소리"

로 단정합니다.

무조건 이혼당해야 하는 시대, 길채는 외려 남편 구원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구원무, 참으로 찌질한 남편상입니다만, 그때 남자들의 인식이 대개 그러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하며 길채가 던진 대사가 이리합니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건 제 잘못은 아닙니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건 제 잘못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팩폭'(팩트 폭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길채 잘못이 아닙니다. 환향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쟁을 예방하지 못하고, 적군을 막아내지 못한, 임금과 신하들을 비롯한 조선 남자들이 잘못된 겁니다. 남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외면하고 여자들의 '잘못'만을 엄히 탓했습니다. 그 허위를 깨부수는 한마디가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건 제 잘못은 아닙니다."입니다.

유길채의 이장현(남궁민 분)에 대한 사랑의 시작은 망설임이었습니다. 철없던 남자에서 철든 여인으로 성숙하면서 비로소 그녀의 사랑도 성숙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 장현을 밀어내는 듯하더니, 나중에는 장현을 위해 장현을 밀어내려고 애씁니다.

반면에 장현의 길채에 대한 지고지순 사랑은 서론·본론·결론이 똑같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숭고한 사랑입니다. 몇 번이나 길채 모르게 목숨을 구해주고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공치사가 없습니다. 남자가 봐도 남궁민이 연기하는 이장현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때로 쓸쓸하고 때로 쓰라려도 여전히 멋집니다. 그 자체가 교훈적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길채와 장현이 조선 땅에서 재회합니다. 장현이 길채에게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었든, 어떤 상황이든, 길채 그 자체를 좋아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길채가 어렵게 어렵게 묻습니다.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길채는?"

장현의 대답은 이 드라마가 의도한 또 다른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윽한 눈빛으로 길채를 바라보던 장현이 대답합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장현이 눈물 그렁한 길채의 얼굴을 보듬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뭔가요. 드라마 보는 나까지 위로받는 이 기분은? "나도 마이 아퍼, 마이 힘들어." 말하고 싶어집니다. 아무튼, 길채가 시대를 뛰어넘는 주체적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장현 역시 당대에 보기 드문, 이상적인 남성성을 드라마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신(史臣, 사관)은 논한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으니, ... 사로잡혀 갔던 부녀들은, 비록 그녀들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절의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는 의리가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조선 남자들의 환향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인조실록》 기록입니다. 지난 47호(2023.09.30.)에 소개했었는데 다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요, 사관의 말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이 더 있습니다.

최명길은 비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 잘못됨이 심하다. ... 선정(先正, 선현)이 말하기를 "절의를 잃은 사람과 짝이 되면 이는 자신도 절의를 잃는 것이다." 하였다.

병자호란 시기 주화파의 대표 인물인 최명길 얘기입니다. 사관이 최명길을 비판하고 있네요. 자기들





최명길 묘(충북 청주)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명길의 환향녀에 대한 인식은 드라마 속 이장현의 생각과 흡사했습니다. 다음은, 최명길이 심양에 갔을 때 겪은 일을 인조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신이 심양의 관사에 있을 때, 한 처녀를 값을 정하고 속(贖)하려고 하였는데, 청나라 사람이 뒤에 약속을 위배하고 값을 더 요구하자 그 처녀가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칼로 자기 목을 찔러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끝내는 그녀의 시신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최명길이 청나라에 갔을 때 어떤 처녀를 구해오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속환가를 너무 많이 울리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네요. 낙담한 처녀가 자결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어도 최명길은 이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최명길은 처녀의 시신 값을 치르고 거두어 와 고국 땅에 묻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처녀였을 겁니다.

최명길은 청에서 돌아온 여인들을 내치지 말고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예(禮)만큼 사람의 정(情)도 소중한 법이니 여인들을 죄인으로 몰아 이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사관이 몹시 잘못됐다며 비판했던 것입니다. 당시 남자들이 볼 때 최명길의 주장은 이단(異端)이지만, 사실은 선각(先覺)입니다. 장현의 길채에 대한 참사랑도 선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어야 존중받던 시대였습니다. 병자호란 그때 강화 땅에서 수많은 여인이 자결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여인이 있습니다. 길채처럼 말이지요. 이제, 기어이 살아낸 그 여인 이야기입니다.

난리 피해 강화도로 왔건만, 정작 강화도에서 더 끔찍한 난리를 겪었다. 청나라 군대에 점령된 강화도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함께 들어왔던 남편은 이제 저세상 사람. 겨우 20살 아낙은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물으로 가는 선박에 올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가 살았기에 다섯 살 아들도, 뱃 속의 아기도 살 수 있었다.

아낙은 스스로 미망인(未亡人)이라 칭하며 남편 따라 죽지 못한 죄인으로 살았다. 평생 화려한 옷, 좋은 음식 가까이하지 않았고 손수 수를 놓고 옷감 짜서 살림을 꾸렸다. 두 아들을 참으로 엄격하게 키웠다.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과부 자식이라서 그렇다는 말이 따라붙기 마련이다. 이 말을 너희들 뼈에 새겨라.” 이렇게 가르쳤다. 뼈에 새겨라!

자식 교육 열정, 흥내 낼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어린 자식에게 말했다. “제때 배우지 않고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다.” 아들 앓혀 놓고 회초리 때려가며 《소학》, 《사략》 등을 직접 가르쳤다. 그만큼 학문도 깊었다. 밥 굶을망정 아이들 공부할 책은 어떻게든 샀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책은 빌려다 여러 날 밤새 베껴서 아이들에게 주었다.

그녀는 자식 교육을 어미의 도리가 아니라 산 자의 사명감으로 여긴 것 같다. 제대로 키워놓아야 죽어서 남편 얼굴을 뿔뿔하게 볼 수 있다고 여긴 것 같다. 두 아들은 학문과 인격을 쌓으며 제대로 컸다.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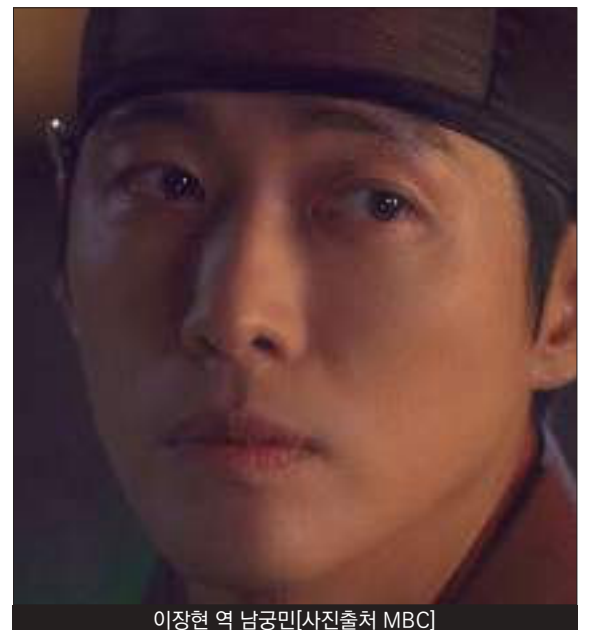
그녀가 키워낸 첫째 아들이 김만기입니다. 병조판서, 대제학 등을 역임합니다. 둘째 아들은 병자호란 난리 때 어머니 뱃속에 있던,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김만중입니다. 김만중은 《사씨남정기》와 《구운몽》을 지었습니다. 벼슬은 공조판서, 대사헌, 대제학 등을 지냅니다.

김만중의 어릴 때 이름 그러니까 아명이 ‘선생’입니다. 어린아이가 어찌 선생인가? 선생(先生)이 아니라 선생(船生)입니다. 병자호란 때 그의 어머니 윤씨는 만삭이었습니다. 강화에서 육지로 피난 가는 배 안에서 만중을 낳았다고 합니다. 배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선생으로 불렀던 모양입니다.

김만중의 출생지가 강화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만, 글썬요,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유길채 역 안은진[사진출처 MBC]



이장현 역 남궁민[사진출처 MBC]

다. 그가 태어날 때 배가 어디쯤 가고 있었을까요? 강화 쪽일 수도 있고 김포에 가까울 수도 있고 인천에 근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배가 강화도 해안에 있을 때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강화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만중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강화성 남문루에서 김상용이 화약에 몸을 던질 때 함께 목숨 버린 김익겸입니다. 김익겸, 그때 나이 23살이었어요.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김상용 등과 함께 선원면 총렬사에 모셔졌습니다.

여러분이 《강화투데이》 이번 호를 받으실 때쯤이면, 드라마 ‘연인’도 끝나게 될 겁니다. 새드 엔딩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이면서 소현세자 사람인 장현까지 없애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도 행복한 결말을 기대해봅니다.

그런데요, 작가가 새드 엔딩으로 마감해도 원망하지 않으렵니다. 과정이 충분히 좋았으니까요. 재밌게 보면서 당시 역사를 복기해보았고, 새삼스럽게 사랑, 정, 이런 것들의 의미라고 할까, 가치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인’아, 이제 나는 너를 보낸다. 안녕!



## 칼럼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



김학준

전) 서울신문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잔인하고 추악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십년째 이어지는 이들간의 분쟁은 무차별적이고 파괴성이 강했지만 특히 이번은 비인도성이 극에 달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1일부터 알시파 병원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병원 4곳을 집중 공습했다. 가자지구 행정청은 알시파 병원에만 1만명이 대피중이고, 환자도 1500명이 수용돼 있다고 전했다. 이들 환자는 병원을 나갈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포위상태다. 병원 신생아실 운영이 중단되면서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들이 숨졌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유엔은 지난달 7일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 의료 시설이 137회 공격받았고, 이로 인해 의료진 사망자 16명을 포함해 521명이 숨지고 68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병원 공격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의 병원 공습 및 휴전 거부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反) 이스라엘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강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민간인 피해는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스라엘은 또 이달 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쪽에 위치한 자발리야 난민촌에 3일 연속 공습해 죽고 다치거나 실종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지난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한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정파)가 민간인과 외국인 등 1300명을 살해하고 수십명을 인질로 삼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자발리야 공습에 대해 “25일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하루 평균 400명의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유엔인권사무소도 “이건 전쟁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불균형적(과도한) 공격들이란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70년 넘게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팔레스타인이 테러 등으로 발미를 제공하면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그 강도가 심해 소송에 미사일로 대응하는 격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과잉진압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복잡한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원인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에 의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이래 유럽과 러시아 등으로 흩어져 살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다른 민족으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았다. 대표

적인 것이 제정 러시아의 유대인 학살과 독일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이다. 그럼에도 성실과 근면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계 각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유대인은 자신들의 국가를 만들어야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유대인의 국가주의 운동인 ‘시오니즘’이 탄생하고, 유대인은 자신들의 조상이 2000년 전에 살았던 필레스타인을 주목하게 된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난 이래 그곳에는 아랍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유럽 등에 살던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땅을 사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조금씩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대인들은 부와 영향력을 토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을 움직였고, 유엔은 1947년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유대인)과 팔레스타인(아랍인) 두 국가로 절반씩 분할하는 방안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이 받은 땅은 주산품인 올리브를 재배하기 어려운 토지였다.

팔레스타인 주민 입장에서 수천년 동안 살아온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가자지구(자치지구)로 쫓겨난 꼴이 돼 원한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다.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여러 번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해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많은 땅(83%)의 차지했다. 나아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높은 장벽을 만들어 고립시켜 가자지구 주민들은 극빈 생활을 이어가는 난민처럼 되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수없이 노력했지만 근원적 한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재로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적인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완전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남의 땅을 차지해 부유하게 살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난민으로 만든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적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팔레스타인도 테러나 전쟁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절박함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한가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피는 피를 부르고 보복은 보복을 낳을뿐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진다는 것은 누구보다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은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전쟁이 이란이나 레바논 등 다른 중동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가동해 이-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유럽, 중동국가

들이 이-팔 분쟁을 자국의 유불리나 이해관계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문제 해결은 커녕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 양측의 유혈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팔 양측의 동등성 원칙을 견지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외교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측에 경도돼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말로만 평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불안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므로 우리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강화군, 마을 세무사에게 어려운 세무 상담? 무료로 받아보세요!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군에서 운영 중인 ‘마을 세무사’가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을 세무사’는 경제적 이유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국세·지방세와 관련한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청구(청구 세액 3배만 원 미만)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세무사들은 재능기부를 통해 농어촌 주민,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평소 궁금해하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소를 돕고 있다.

현재 강화군에는 2명의 마을 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23년 9월 말 기준 426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383건은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해 진행됐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단,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과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의 재산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된다.

문의 ▶ 강화군청 재무과 ☎ 930-3398

강화군청 홈페이지

인천 미추홀 콜센터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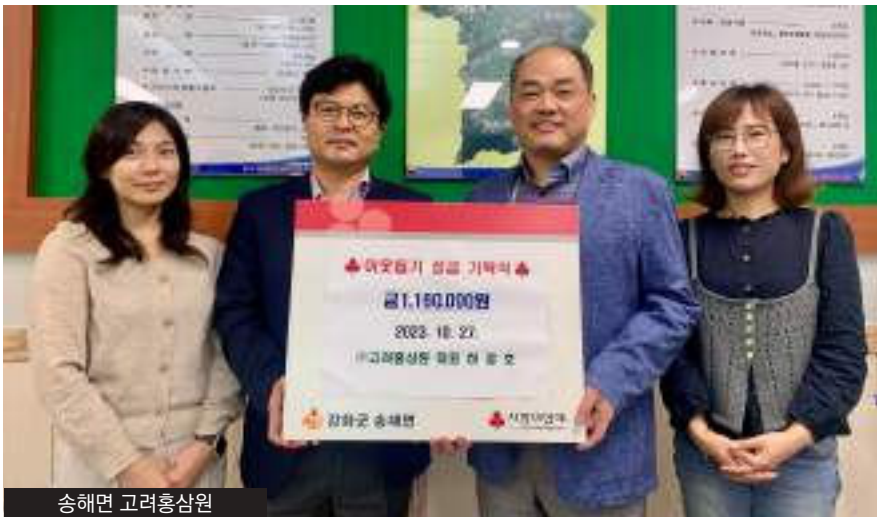


# 이웃사랑은 11월도 이어졌습니다

## 릴레이 이웃사랑 성금 기탁



강화씨앤씨



송해면 고려홍삼원



남산군립어린이집



글로벌세프고



강화 본치과

## 바자회 수익금 전액, 반찬 동행 기금으로 활용 예정

# 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자회와 반찬 동행으로 이웃 사랑 실천



바자회와 반찬 동행으로 이웃 사랑 실천 \_ 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강화군 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회장 염금숙)이 지난 2일, 온수시장 광장에서 사랑의 반찬 동행 기금 조성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열린 이번 바자회에는 주민들과 기업체가 후원한 물품을 판매하고 잔치국수, 떡볶이 등 먹거리 장터가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회는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판매 수익금 전액은 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길사모)이 매주 독거

가정 30여 분께 반찬을 만들어 나눠드리는 '사랑의 반찬 동행'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염금숙 회장은 "길사모와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어 뜻깊은 행사였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형숙 길상면장은 "바자회를 열어 이웃 간의 정을 느끼게 해준 길사모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상면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 서정진 기자



# 하점면, 칼 갈~~어! 김장철 맞이 칼갈이 자원봉사



하점면 칼갈이 자원봉사

강화군 하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몸살림운동(강사 권영욱) 회원들이 지난 3일 하점면사무소 공터에서 김장철 맞이 칼갈이 자원봉사를 펼쳤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상반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날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오전 9시부터 봉사가 이루어졌으며, 줄지은 바구니에

는 주민들이 가지고 온 주방용 칼과 과도 등이 쌓여 있었다. 주민들은 “장에도 나가지 못해 무뎠던 칼로 김장 준비하려면 힘들었을텐데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에 권영욱 강사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보람차다.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 강화읍 삼일가스뱅크, 불우 이웃 대상 가스레인지 기부



강화읍 삼일가스뱅크 불우 이웃 대상 가스레인지 기부

강화읍(읍장 주우종)은 읍내 소재한 삼일가스뱅크(사장 이미경)가 지난 2일, 관내 불우이웃에게 정기 기부를 약속하며 린나이 가스레인지 2대(48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가스레인지 노후화로 화재 위험이 있는 라이터를 사용하며 불안했었던 한 부모와 독거 어르신은 신형 가스레인지를 받아 기뻐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삼일가스뱅크 이미경 사장은 “가스

레인지 판매 사업을 하면서 평소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기부를 생각했었고, 앞으로 3개월마다 한 대씩 가스레인지를 기탁 및 설치해 드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우종 읍장은 “이웃을 위한 관심과 나눔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낡은 가스레인지를 교체하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연계하겠다”고 전했다.

# 양사면,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찜질기 나눔 행사



양사면 찜질기 나눔

강화군 양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규숙, 공동위원장 이지영)는 지난 10월 31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찜질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관내 주민과 기업·단체의 성금으로 마련한 온열찜질기(370만 원 상당)를 홀몸 어르신 10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사용법을 알려드렸다.

이날 이규숙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겨울나기가 걱정되었는데 행사를 통해 건강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지영 양사면장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복지 욕구에 맞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 서정진 기자

##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 빈대 박멸을 위한 예방 및 관리

## 빈대(Bed Bug)의 생태적 특성

### ◆ 매개 감염병 등 인체 영향

- 현재까지 질병을 매개한 기록은 없으나 가려움 증을 유발하여 이차적 피부감염 생기기도 함
- 드물게 여러마리에 의해서 동시에 노출시 Anaphylaxis가 일어나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킴
- 흡혈욕구가 강하고, 주로 야간에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방해



### ◆ 형태적 특징

- 성충은 약 5~6 mm, 상하로 납작하게 눌린 난형이며 진한 갈색을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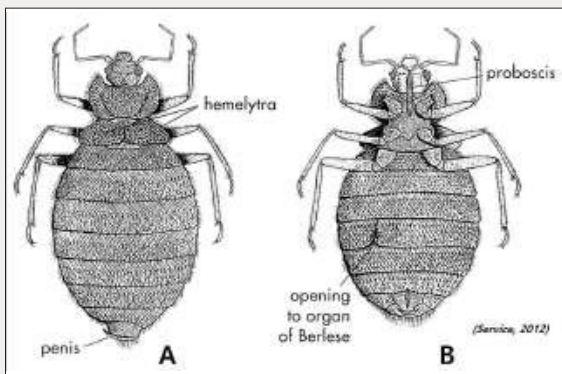


그림 2-1. 빈대의 형태. (A)수컷(등면); (B)암컷(배면). (C)발육단계별 형태. (a)성충; (b)알; (c)1령 약충; (d)단계별 탈피각

## 빈대(Bed Bug) 발견 방법

### ◆ 빈대 발견의 개념

- 빈대는 주로 야간에 수면 중인 사람을 흡혈하기 때문에 침대 등 사람이 잠을 자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주로 서식
- 흡혈할 때만 잠시 나타나고 흡혈 후 어두운 곳에 숨음

\* 섬유질, 목재, 종이로 된 틈새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또는 이불이나 침구류 등에 숨어 있음



(출처: Dini M. Miller, Ph.D)

### ◆ 주간 발견 방법

- (물린자국) 모기 물린 것과 비슷하나, 주로 옷에 가려지지 않은 팔, 손, 목, 다리 등 노출 부위를 물며, 혈관을 잘 찾지 못해서 2~3곳을 연달아 물어 일렬이나 원형으로 자국이 생김

### • (직접확인) 빈대를 눈으로 직접 확인

- 성충은 적갈색에 납작하며 4~7 mm 정도, 약충은 성충에 비해 더 작고 옅은 색깔임

- (흔적) 깊이 숨어 있는 빈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매우 힘들,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찾는 것이 효율적

\* 침대의 매트리스 패드를 들어 올리고 침대 모서리나 커버의 주름진 곳을 확인하여 적갈색의 빈대 배설물이나 빈대가 눌러져 죽으면서 묻힌 혈흔 또는 알껍질(난각)이나 탈피 허물 등을 찾을 수 있음

- (냄새)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 같기도한 냄새를 풍김으로 빈대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출처: Dini M. Miller, Ph.D)

### ◆ 야간 발견 방법

- 빈대는 빛을 싫어하므로 방의 불을 켜면 숨어버림
- 캄캄한 방에 조용히 들어가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면 어두운 곳으로 숨기 위해 움직이는 빈대를 찾을 수 있음

\* 특히 침대 모서리나 매트리스 사이 집중 확인

## 빈대(Bed Bug) 발견 시 방제 방법

### ◆ 빈대 방제는 물리적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

#### • 빈대 확인 후 실시 요령

- 오염된 매트리스, 가구 등은 방제 후 재사용 여부 판단

\* 모든 빈대가 제거될 때까지 커버 유지

- 오염된 물품 폐기 시, 반드시 방제 후 폐기

\* 방제 없이 폐기 시, 빈대가 새로운 장소로 확산 및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방제 후, 정기적으로 서식장소에서 빈대 유무 확인

- 다가구, 숙박업소 등 오염장소 주변으로 동시에 방제 진행

### ◆ 물리적 방제

- 스팀 고열을 빈대가 서식하는 가구 틈과 벽 틈에 분사하여 방제

- 카페트는 살충제 처리 전 스팀 청소

- 벽에 맞닿아 있는 카페트(특히, 침대의 머리맡 부분)는 반드시 방제

- 청소기의 흡입력을 이용하여 침대(box spring 내부 필수), 매트리스, 소파, 가구, 벽지, 책 등 오염된 모든 장소 주변의 알, 자충, 성충을 포집하여 제거

- 전공청소 끝난 후에는 내용물을 진공 봉투에 버림

- 오염 직물(의류, 커튼, 침대커버 등)은 50~60°C 건조기에 약 30분 이상 처리하여 방제

### ◆ 화학적 방제

- 빈대 서식처 확인 후 살충제(환경부 허가제품) 처리(제외, 매트리스, 침대 라인)

- 서식처 틈새에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를 잔류분무 처리

\* 제품 라벨에 표기된 용법·용량을 사용 권장

- 벽 틈(시멘트, 나무)에는 액상수화제나 마이크로캡슐제를 사용하고,

- 페인트 바른 시멘트벽이거나 합판인 경우, 잔류분무용 유제를 사용

- 가열 연막 또는 훈증(일명 연막탄)을 이용하여 빈대 방제 자제

- 빈대에 효과가 적으며, 숨어 있던 빈대가 약제를 피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

### ◆ 빈대를 예방하려면

- 숙박업소 방문 즉시, 빈대가 숨어 있는 공간을 확인

- 침대 매트리스, 머리판(headboard, 벽에 밀착된 경우 뒷면 확인), 카페트, 침구류, 소파, 가구 등 틈새(이음새 포함)

- 빈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방 바닥 또는 침대에 짐 보관 지양

- 여행 중 빈대에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

\* 밀봉하여 장시간 보관하거나,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 등

발췌 ▶

질병관리청 <빈대 정보집>



# 강화군, 온실가스 감축하고 인센티브 혜택 누리요!

## 2023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12월까지 2023년 하반기를 맞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란 가정 또는 상업시설,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률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탄소 포인트 1포인트당 최대 2원의 범위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지급 주기는 매년 6월과 12월로 연 2회이다.

지급 대상은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중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항목 중 1가지 이상이 5% 이상 절감한 가정으로, 각 에너지 사용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포인트제 공식누리집(cpoint.or.kr)으로 접속하여 에너지 정보, 인센티브 지급 정

보 등의 상세 정보를 입력한 후,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동참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벽하 기자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www.cpoint.or.kr

▶ **차면 신청**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작성

---

### 탄소포인트 신청방법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 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탄소포인트를 신청합니다.

현재 사용량 < 비교 > 과거 2년 간의 평균 사용량

---

### 탄소포인트 부여

▶ 에너지 항목별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연 2회 부여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 이상~10% 미만	5,000 포인트	750 포인트	3,000 포인트
10% 이상~15% 미만	10,000 포인트	1,500 포인트	6,000 포인트
15% 이상	15,000 포인트	2,000 포인트	8,000 포인트

▶ 4회 이상 연속 감축시 다음 반기부터 0%초과~5%미만 감축 시 포인트 부여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 초과~5% 미만	3,000 포인트	450 포인트	1,800 포인트

### 참여대상

▶ **개인·상업**

가정, 상수도,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실 사용자

---

### 참여영역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

### 참여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

### 인센티브 지급

탄소포인트 1포인트 당 최대 2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 ▶ 지급주기 : 연 2회(6월, 12월)
- ▶ 지급종류 : 현금, 그린카드 포인트, 상품권, 증정상품 등
-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종류 중 1가지 선택

### 우리집 에너지! 이렇게 절약하세요

- ▶ 실내 적정온도를 지켜주세요.
- ▶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 두세요.
- ▶ 세수, 양치, 샤워 시 물을 받아서 사용하세요.
- ▶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해 주세요.
- ▶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꺼주세요.
- ▶ 냉장고 문은 자주 여닫지 말고, 음식은 가득 채우지 마세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보다 나은 인쇄와 광고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합니다!

명함 · 달력 · 상패 · 스티커 · 전단지 · 청첩장 · 포스터 · 책  
 봉투 · 인쇄 · 복사 · 코팅 · 팩스 · 제본 · 행사홍보기념품 제작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 today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